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 기사를 씁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돌이 되고 있는 신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여당당

## 여성NEWS

여성이 바로 서야 고성이 산다



여당당.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다.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세상!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평등사회”

# “봉사활동으로 우울증 극복하고 활기찬 생활”

## 갱년기 우울증 자원봉사로 극복한 이은자씨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니 심하게 앓던 우울증도 사라지고, 예전보다 더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됐어요.”

중년 여성이면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갱년기 우울증을 사회봉사활동으로 극복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성이 있다.

거진에서 남편이 운영하는 대남목공소 일을 도우며 평범한 가정 주부로 살고 있는 이은자씨(52세, 사진)가 그 주인공.

이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일 보조와 함께 거진농협 사회봉사단체인 농가주부회장과 거진읍 새마을부녀회 부회장도 맡아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흥천 태생으로 1982년 고성으로 시집 온 언니를 만나러왔다가 고성 출신인 남편 김양성씨(56세)를 만나 이듬해인 1983년 결혼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언니가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 주려고 일부러 불렀던거 같아요. 호호.”

이씨는 “남편이 얼마나 성실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하는지 정말 사랑스러웠다”며 “남편과 잠시라도 떨어지기 싫어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샷시 일을 도우며 열심히 살았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런 걱정없이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삶에도 복병이 도사리고 있었다.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갱년기 우울증 때문이었다.

“처음에 우울증이 왔을 때 정말 겁도 나고, 걱정도 많이 했어요. 용기를 내 치료도 받았지요. 남편을 비롯해 가족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더욱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씨는 우울증 극복을 위해 병원치료와 함께 평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남편의 권유로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남편 김씨는 현재 거진 의용소방대 부대장과 거진방범대 대장을 맡고 있다.

우울증을 벗어나기 위한 그녀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이씨는 자원봉사활동과 함께

부업으로 뷔페나 식당일까지 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더욱 외로워지기 때문이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성격도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변하고, 병마도 이겨낼 수 있었다.

이씨는 남편 김씨의 배려가 없었다면 가사일과 함께 자원봉사활동, 부업까지 모두 해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엄마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아무 탈 없이 착하게 잘 자라줘 고마워요. 자식 농사만큼은 누구보다 잘 지은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이씨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



으로 우리가 잘 자란 것 같다”며 “어른이 되면 은혜를 다 갚아드리겠다고 할때면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

이씨는 “앞으로도 가사일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살겠다”며 “저처럼 갱년기 우울증을 겪는 여성들은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극복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승근 기자



## 여성단체 탐방 2

# “지역사회 봉사·홍보도우미 최선”

### 고성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가정 육성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5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고성군 새마을부녀회(회장 강길자)는 지역의 건전 가정 육성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외국인 새마을 교육 및 새마을가족 흡수로 다문화가족 사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많은 봉사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새마을부녀회가 하는 일은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이민자 가족 고향보내기를 위한 화장지 전달, 사랑의 열매 가두 모금 캠페인, 저소득 가정 연탄배달, 고성군홍보도우미,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담그기, 외국인 주부와 함께 한국전통 음식

만들기 등이 그것이다.

새마을부녀회는 이와함께 복지시설을 찾아 어르신과 말벗 되어주기, 식사도우미 및 물품전달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생활문화 개선운동과 청소년 독서문화운동도 새마을부녀회의 주요 활동이다.

고성군 새마을부녀회 강길자 회장은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새마을운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회원 모두와 혼연일체돼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봉사뿐만이 아니라 지역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강길자 새마을부녀회장